

2019 년 10 월 27 일 “사랑과 성숙”(롬 5:1-8)

<도입>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피조물과 함께 누리는 일반적인 속성이면서도 사람에게에는 특별히 최상의 축복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고 행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의롭다하심으로 열린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면 그분과 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새로운 길을 받습니다. 이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칭의) 말합니다(1 절). 의롭다함은 5 절(후)에서 “...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5 절(전)에서 성도가 가진 소망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연단을 통해서 얻습니다(4 절후). 연단은 시련으로 형성된 성품을 말하며 인내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4 절전). 또한 인내는 환란 속에서 발휘됩니다(3 절). 한계에 부딪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환란은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환란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가졌다는 뜻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빛을 보았으며, 죄와 악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바울은 6-8 절에서 그 사랑이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2] 성숙이 목표

본문은 환란, 인내,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에 이르는 과정을 말해주며, 이것은 구원 받고 새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목적(참고. 창 1:26-28)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으로만 가능한 성숙(성화)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성숙의 과정에는 환란과 인내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3]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것

성경적 성숙의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합니다. 마 6 장 산상수훈을 보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삶은 하나님과 자신에게 충실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골방이 필요합니다. 골방이 없는 성도의 삶은 걸돌기 쉽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말씀 위에 삶을 세웁니다. 이것이 성숙의 길입니다.

성숙의 핵심은 사랑 받고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벧전 4:8). 타인과 자신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자유하는 사람은 평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타인이나 공동체를 조정하지 않으며 사람의 인정과 업적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참 사랑으로 환란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 되어 소망을 얻는 성숙을 향할 수 있게 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한 걸음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고후 3:17-18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됨의 표지입니다.

< 맺음 >

성숙은 성도 안에서 참사랑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품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자유하며, 평안하고, 받아주는, 이러한 참 사랑의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 나눔의 질문 >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말하는 성숙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성숙의 길은 무엇인지 이번 설교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봅시다.
2. 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는 동안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